

연세의대 CDP 2004 의료와 사회 2004년도 1학년 1분기 계획안

전 우 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I. 서론

의학은 인간의 신체적 고통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적 고통은 단지 생물학적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윤리적, 역사적, 법적, 종교적 측면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 고통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의학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전우택 등, 2002, 2003). 그것이 연세의대의 CDP 2004에서 "의료와 사회" 교육 영역을 만든 이유이다.

연세의대의 새로운 교육 목표는 이러한 "의료와 사회" 교육 영역과 연관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와 의학' 교육은 그러한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연세의대 교육 목표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와 사회' 교육과 연관된 교육 목표는 첫째, 기독교적 세계관의 함양, 둘째, 다양하고 개별화된 인문, 사회과학적 교육의 강화, 셋째, 국제적 의식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 양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II. 2004년도 의료와 사회 교육 계획

이에 맞추어 전체적인 의료와 사회 교육 계획과 강의 계획이 만들어 졌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육 과정으로 1학년 1학기에 필수과목인 "의료와 의학의 이해" 과목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 교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학생들은 예과 2학년 2학기에 '의학 입문' 과목을 수강한 바 있으므로 그 당시 들은 교과목 내용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본 교육 과정을 구성하게 된다. 주당 2시간씩으로 구성되는 이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예정이다.

1. 학습 목표

인간 고통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사회 및 문화 구조 안에서의 의학과 의료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2. 강의 구성

- 제1강 인간의 고통과 의료의 본질 - 전우택
(연세의대, 의학교육과, 정신과)
- 제2강 우리 사회 속에서의 건강과 질병 - 이종찬(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과)

제3강 의료와 사회문화 - 강규형 (명지대, 교양학부)

제4강 노벨의학상의 현대 의학 - 여인석 (연세의대, 의사학과)

제5강 의사의 삶과 진로 선택 - 이수곤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내과)

제6강 의료사회의 이해 - 박재영 (청년 의사, 편집인)

제7강 의료와 기독교적 세계관 - 김동수 (연세의대, 소아과) / 신전수 (미생물학교실)

제8강 종합 토론 - 전우택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정신과)

3. 강의 내용

제1강 인간의 고통과 의료의 본질

1) 학습 목표 : 의료의 본질적 대상인 인간의 고통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고통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지를 이해하고, 의료는 그런 고통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 가를 알도록 한다.

2) 학습 내용 : (1) 인간의 고통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영적인 측면 등이 포함된다. (2) 인간의 고통이 삶에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의료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의사의 역할, 의학의 역할, 의과대학 공부가 가지는 의미 등이 포함된다. (4) 마지막 종합 토의 시간에 다룰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개인, 조별 주제 선택을

하도록 한다.

제2강 우리 사회 속에서의 건강과 질병

1) 학습 목표 : 의학이 인간 고통과 질병, 치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개념들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의료를 좀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2) 학습 내용 : (1) 의학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본다. 여기에는 건강의 정의, 질병의 정의, 의료의 정의 등이 포함된다. (2) 현대 의학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건강에 대한 개념들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현대 문화와 사회가 의학에 미치는 영향, 현대 의학의 특징 등이 포함된다. (3) 의료 다원주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의학의 특성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4) 미래 의학이 당면하고 있는 논점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제3강 의료와 사회문화

1) 학습 목표 : 전체 사회 구조 안에서 의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고, 다른 사회 하부 구조들과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2) 학습 내용 : (1) 전체 사회 구조 안에서의 의료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한다. (2) 사회 하부 구조들과 의료와의 갈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사회 자원 분배의 원칙과 경쟁,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의료의 추구하는 가치의 충돌 등이 포함된다. (3) 의료에 대한 일반인들과 의료인들의 시각 차와 갈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2000년도 의사들의 행동은

집단 이기주의인가? 를 다룬다. (4)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제4강 노벨 의학상과 현대 의학

1) 학습목표 : 역대 노벨의학상 수상 연구업적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이 업적들이 갖는 의학적,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본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어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2) 학습내용 : 노벨상은 그 권위가 말해주듯이 해당 분야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업적에 대해 주어진다. 역대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연구업적들을 살펴보면 현대의학의 발전에 한 획을 긋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업적에 대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벨의학상 수상 연구업적들을 살펴보면 현대의학이 나아가는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룰 것이다. (1) 어떠한 연구업적들에 대해 노벨의학상이 주어졌는가를 살펴본다 - 가능하다면 중요하고 학생들에게도 잘 알려진 연구업적들에 초점을 맞춘다. (2) 노벨의학상은 후대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연구업적에 대해 주어졌던 경우도 있고, 연구업적이 발표된 당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인정을 받아 수상 받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노벨상의 이면을 살펴본다. (3) 역대 수상자들의 수상 국가 분석을 통해 의학연구의 축이 옮겨가는 모습을 살펴본다. 또 노벨상 수상을 통해 의학연구가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 (4) 세기의 발견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몇 가지 흥미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5강 의사들의 삶과 진로 선택

1) 학습 목표 :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과정과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진로 준비에 대하여 알아본다.

2) 학습 내용 : (1) 의사들의 시기별 삶과 심리에 대하여 알아본다. 여기에는 의과대학생, 인턴, 전공의, 중년기 의사, 노년기 의사 시기의 삶과 심리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의사로서의 인생 계획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임상의학자, 인접분야에서의 전문가 활동 등이 포함된다.

제6강 의사 사회에 대한 이해

1) 학습 목표 : 의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의료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의료 사회의 조직과 구조에 대하여 알아본다.

2) 학습 내용 : (1) 의사 사회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의사들의 개인적 특성 경향과 의사 사회의 문화와 특성을 포함한다. (2) 의료 사회의 조직과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의료 사회의 공적인 구조와 기능 및 의료 사회의 사적인 구조와 기능을 포함한다. (3) 개인과 조직인으로서의 의사 활동에 대하여 이해한다. (4) 바람직한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7강 의료와 기독교적 세계관

1) 학습 목표 : 성서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인간, 질병, 의료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하여 의사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2) 학습 내용 : (1) 기독교적 세계관의 유형과 시각 분류를 한다. (2) 기독교적 세계관이 바라보는 인간, 질병, 의료에 대하여 알아본다. (3)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하여 보는 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알아본다. (4) 기독교 기관으로서의 연세의대와 세브란스 병원의 역사와 비전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8강 종합 토론

1) 학습 목표 : 본 강좌를 통하여 가지게 된 새로운 지식과 시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토론하여 향후 자신들이 해 나갈 의학 공부 및 진로 선택에 있어 좀더 방향성을 가지도록 돕는다.

2) 학습 내용 : (1) 본 강좌의 첫 시간에 개인적으로 선택하였던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준비한 학생들끼리 조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준비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한다. (2) 조에서 정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 발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교수의 평가 및 토론을 하도록 한다. (3) 본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III. 의료와 사회 선택과목 운영 안내

앞으로 있게 될 의료와 사회의 교과목 운영에 있어 필수과목의 운영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하며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향후 1학년년부터 3학년에 걸쳐 매 4분기에 있게 될 선택과목의 운영이다. 이것은 의료와 사회의 교육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 강조되고 있는 개별화 전문화에 핵심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문사회의학 분야의 교육을 시도한 전례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은 획기적인 교육 방법이지만, 동시에 그 만큼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로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의료와 사회의 선택과목 운영 방안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 관심 있는 교수님들의 참여를 요청하고자 한다.

1. 선택과목 운영 원칙

1) 1,2,3 학년 각 4분기, 총 3분기 동안 실시한다.

2) 학교의 사용 가능 공간 등을 고려하여 매 분기 6-10개 과목을 개설하도록 한다.

3) 개설되는 교과목들의 내용을 미리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수강신청을 받도록 한다.

4) 선택과목은 수강 신청시 학년의 구분 없이 하도록 한다.

5) 선택과목은 과목당 수강신청자의 최소, 최대 인원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6) 선택과목 1과목 당 1학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7) 과목의 평가는 수업 참여와 리포트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8) 과목의 평가는 학점제로 한다.

9) 선택과목의 개설은 의과대학 소속 교수가 개인 또는 팀을 만들어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의과대학에서 교육의 목적 상 외부 강사를 초빙

하여 개설할 수 있다.

교과목 개설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강신청 받는 것의 여부를 결정하며, 수강신청이 끝난 뒤, 심사를 하여 교과목 개설을 최종 결정한다.

2. 선택과목 개설 분야 및 선택 교과목의 예

선택과목의 개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만들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분야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각 분야에서 예상할 수 있는 선택 교과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의료 분야 - 재난구조 의료, 노령화 사회와 의학, 대체의학, 약물남용, 임상예방의학
- 2) 사회 분야 - 의료사회학, 의료와 정치, 의료와 언론, 의료와 경제, 의료와 사회정책
- 3) 문화 분야 - 의료인류학, 의료와 대중매체, 의료와 예술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 4) 기독교신앙 분야 - 의료와 성서, 의료선교학, 기독교상담학 등
- 5) 국제활동 분야 - 국제의료기구에서의 활동 등
- 6) 의료조직 분야 - 병원 경영학, 의료 리더십 등
- 7) 의학교육, 연구 방법 분야 - 의학교육학, 사회의학 연구방법론 등
- 8) 의료윤리, 의료법 분야 - 의료소송 실무, 산업장 보건 관리 등

IV. 결론 및 제언

이미 2003년도 2학기에 본과 2학년을 대상으로 의료와 사회 선택과목이 6개 과목으로 개설되

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향후 좀더 다양한 의료와 사회 선택과목의 개설과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의료와 사회 교육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민함, 그리고 사회에 대한 통합적 인식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의사를 키워내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러나 주로 자연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의사들과 의과대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목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문사회이학적 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의과대학 교육에서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의과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인식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글의 저자와 의학교육학과의 양은배 교수가 공저한 "인문사회이학과 의학교육의 미래" (2003, 연세대학교 출판부)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활동에 적절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의료와 사회와 같은 인문사회이학 교육에 있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교과목 개설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의과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와의 대 교수들이 실시하는 교육에 훨씬 더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의과대학에서의 인문사회이학 교육은 외부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전공자들만이 들어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분들과 의대 교수들의 공동 교육이 필요로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대학들과는 달리,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인문 과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학내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인문사회의학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러한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가가 앞으로 이러한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하여 좀더 조직적인 제도가 필요로 되며, 그에 따른 학교 행정 당국의 지원이 요구된다. 모든 의과대학 교수들은 자신들의 임상 활동들과 연구 활동들만으로도 이미 시간의 포화 상태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 분들이 학생들의 교육, 특히 인문사회학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매우 적극적인 학교의 지원이 필요로 된다. 이미 400명이 넘는 의과대

학의 교수 중 상당수는 학생들과 이러한 인문사회학적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분들을 이러한 교육의 장으로 나오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제 학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의학과 세계 의학을 선도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들과 노력이 결집되어 만들어진 CDP 2004 가 이제 시작하려는 시점에 들어섰다. 이것의 성공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 전우택 (2001). 사회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연구보고서.
- 전우택, 성명훈, 천병철 (2002). 의료의 문화 사회학. 몸과 마음. 서울
- 전우택, 양은배 (2003). 인문사회학과 의학 교육의 미래.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